

광주지하철 2호선 역명 설문 신뢰성 '논란'

209번 역 '기타' 의견 18.5% 달해 18개 역 중 14곳서 1번 선택 우세 원광대 한방병원 "납득 어려움" 市 "사기업 이전 가능성 있어 제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설문 결과를 놓고 신뢰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15일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O·N)'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설문 진행됐다. 온라인 1만1천238명, 오프라인 2천486명 등 광주 시민 1만3천724명이 설문 참여했다.

설문 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0개 역 가운데 환승역인 상무역과 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었다. 설문은 각 역마다 3개의 후보 명칭과 '기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선호하는 역명을 고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설문 과정에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이 명칭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그 경위와 설문 문항 구성의 적절성, 설문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9번 역의 경우 보기별 설문 비율이 ▲중앙생활체육공원역 45.2% ▲금당산입구역 27.9% ▲질봉산역 8.4% ▲기타 18.5%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로 집계됐다. 209번 역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역의 기타 응답이 12~28%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타

항목이 18.5%를 차지한 209번 역의 보기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이 포함됐다던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설문이 거주 지역별이 아닌 시민들이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하게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18개 역 가운데 14개 역에서 1번 보기가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여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상단에 배치된 1번에 응답이 몰리는 이른바 '상단 편중'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후보 명칭이 실제 지역 인지도나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초기 가칭에는 병원 명칭이 반영됐는데, 이번 설문에서는 빠졌다"며 "지역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도로 이정표에도 표기돼 있는데 후보에서 제외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문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 특정 역의 결과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선정된 역명 보기 3개는 공익성과 상징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며 "209번의 기타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모두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병원 측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업 명칭은 이전 가능성 등이 있어 공식 역명 후보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식 역명이 아닌 부기역명은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병기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상기자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 전시 열려 5·18기념재단 기획...오는 6월2일까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 재조명을 위한 기획 전시가 열린다. 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2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정신의 뿌리라는 점을 조명하고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헌법 전문의 개념과 역할 ▲헌법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역사 계승의 의미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의미 ▲오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는 예정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연상기자



보철 감염병 예방 금연 캠페인. 보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 캠페인이 8일 오후 광주 서구 중합버스터미널에서 열려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시민들의 폐활량 등 폐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日서 사죄 촉구한다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등서 故 이춘식·정창희씨 유족도 동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 할머니는 이날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9일 도쿄에서 열리는 '마루노우치 행동'

에 참여한다. 마루노우치 행동은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이 주관하는 집회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어진 '금요행동'의 연장선이다. 정 할머니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씨의 장남 이창환씨,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정종건씨 등 3명도 함께한다. 정 할머니 등은 오후 4시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공동행동'이 국회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원내집회에도 참석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성토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함께 갔던 전남 지역 친구 6명은 같은 해 도난 카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4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 항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 할머니는 피해 입증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931원(99엔)'을 송금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일본 측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탈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를 '모욕적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형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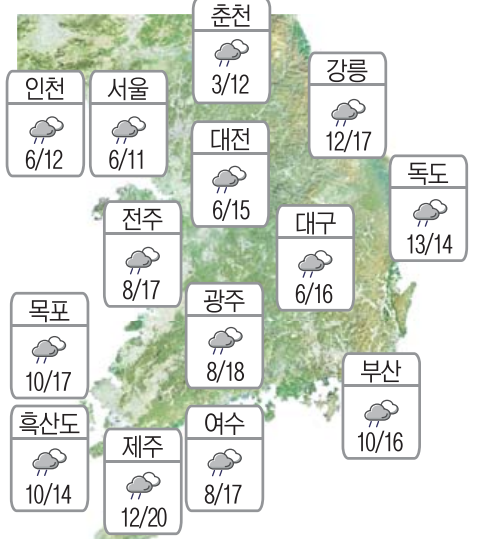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해질 19:00 🌧달돋이 01:03 달짐 10:25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비	8/18	장성	구름비	7/17
목포	구름비	10/17	보성	구름비	7/17
여수	구름비	8/17	함평	구름비	8/17
나주	구름비	8/17	순천	구름비	7/17
완도	구름비	10/18	영광	구름비	8/17
구례	구름비	7/17	진도	구름비	11/17
강진	구름비	8/17	흑산도	구름비	10/14
해남	구름비	9/17	고흥	구름비	7/17
광양	구름비	7/17	담양	구름비	6/1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3.0	1.5-3.0
남해 앞바다(북)	1.5-3.5	1.5-3.5
남해 앞바다(남)	1.5-3.5	1.5-3.5
남해 앞바다(중)	1.5-2.5	1.5-3.0
서부 앞바다(서)	1.0-3.0	1.5-3.5
서부 앞바다(서)	1.5-3.0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6:20	11:34	여수	00:48	07:05	01:38	08:30
	18:08	23:22		12:40	18:48	13:14	19:53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30** 🚗 **세 차 20**
우산 챙기세요 다음으로 미루세요

🧤 **빨래 20** 🏃 **운동 30**
세탁기 쉬는날 운동하기 좋지 않아요

●주간 날씨

10일(금)	11일(토)	12일(일)
☀(12/15) 맑음	☀(7/21) 구름조금	☁(10/22) 구름많음
☀(14/19) 구름조금	☀(11/22) 맑음	☀(9/23)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